

한국문학, 문화를 소개하는 즐거움

강연자 : 김승복(CUON 대표)

정리 : 전양주

김승복 오늘 저는 일본에서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일인가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왜 출판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해 한국시를 전공했고, 졸업하던 해에 바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연구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본 황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한 가쿠슈인대학(学習院大学)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한국 고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니혼대학(日本大学) 예술학부에 들어가서 문예평론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문예과를 나오면 보통 출판사에 많이 취직하고 기자가 되거나 글과 연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말로 네트워킹인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일본 내 출판사에 다니거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출판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했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책 읽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한국 작가들은 일본 작가들보다 세계관이 더 깊고 따뜻해서 읽고 나서의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한국 소설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하고 검토서를 작성해서 출판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에게 돌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큰 출판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네가 직접 해봐라.”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출판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출판업은 아주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쉽지만 인정받는 데까지 시간이

한국문학과 한국 작가를 소개한다는 것

저희들은 책을 내는 것만이 아니고 한국 작가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 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작가만 초청해서 강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유명 작가와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김연수 씨를 초청했다면, 평소 김연수 씨를 알고 있는 층 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명도가 있고 팬이 많은 사람, 이를테면 히라노 케이치로(平野啓一郎)와 토크를 하게끔 준비하고 또 이것이 신문에 실리도록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가를 초청하게 되면 항상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저희 같이 작은 출판사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야 하니까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에서는 소설을 비롯해서 시, 그림 같은 일본의 문예물들이 1년에 약 900권에서 1,000권 정도 나옵니다. 비문예물까지 합하면 약 4,000권 정도에 이릅니다. 반대로 일본에 소개되는 한국 문예물은 10권에서 많을 때라도 20권에 불과합니다. 거의 100대 1 수준이죠. 물론 문화를 논하는데 형평성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K문학 진흥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한국을 잘 아시는 분들, 연구자들, 또 여러분들처럼 통번역하시는 분들, 새로운 한류로서 한국을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한 그런 분들에게 한국 관련 책들을 추천받고 그 중 50권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책에 대해서 2페이지에 걸쳐 전체적인 개요와 어필 포인트, 샘플 번역까지 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닌 출판사를 상대로 책을 내고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의 유명 인사들이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 책을 소개하게 하고, 또 한국 입문서적을 많이 내는 출판사 편집자에게 한국 책 출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고, 김난도 선생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번역한 디스커버 21이라는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그곳 임원이 오셔서 발표도 했습니다.

김난도 선생님의 또 다른 책 중에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은 한국에서 몇 백만 부가 팔린 책인데, 일본의 디스커버 21에서 아주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번역 출판을 했습니다. 워낙 큰 출판사이다 보니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국

많이 걸립니다. 원고를 주실 분들이나 서점, 인쇄소 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관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인정받는 친구들과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대학교 후배 중에 문예물 편집을 잘하고, 일본의 유명한 작가들과 교류가 있는 친구에게 같이 일하자고 했더니 이미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아직 CUON이라는 회사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책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일본 책을 한국에 소개하는 에이전트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국 것을 일본에 소개하는 일도 조금씩 하면서 CUON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한국 책을 출판할 때 삼성에 관한 책들 같은 비즈니스 서적들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런 책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한국문학을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예전 1980~1990년대 소설들 말고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소설들 중에 나의 몸과 마음을 적었던 작품 리스트가 있겠죠? 그것을 시리즈로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책이 1번,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이 지금 한국에서 유명하신 김중혁 씨의 <약기들의 도서관>,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두근두근 내 인생>, 이렇게 시리즈를 냈습니다. 책 표지들을 보시면 다들 감동하시는데, 일본에서 아트디렉터로 굉장히 유명한 요리후지 분베(寄藤文平)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한국문학을 내고 싶은데 한국 작가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스타일로 가고 싶다, 표지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작전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기 때문에 그 층을 공략하려면 표지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장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표지뿐만 아니라 조판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문학이 어떻게 보여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 출판사나 신문기자들, 출판 관계자들에게 보냈는데 모두 절찬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주요 신문사 서평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어들이 뽑은 올해의 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출판사를 차려서 포지셔닝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 서점 300군데에서 대규모 코너를 만들어 프로모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부나 팔렸을까요? 한국에서는 200만 부 정도 팔렸는데, 일본에서는 겨우 3만 부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너무 처참한 결과죠. 김난도 선생님을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방송도 하고, 또 직접 강의 하시는 모습을 NHK에서 며칠 동안 방송했거든요? 그랬는데도 3만 부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발표를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했더라도 이미 해봤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책을 낸 이야기를 해달라고 설득했고 이야기가 성사되어 발표를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저에게도 앞으로 계속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 것을 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인터뷰하거나 한국에 소개될 때 '재일 한국인 김승복, 출판한류를 꿈꾼다'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전 그렇게 코멘트 한 적도 없지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것을 한다'라는 접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본 소설도 읽고, 한국 소설도 읽었는데, 한국 소설이 재미있고,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셔널적인 관점에 치우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올라와서 위에서 조망해 보는 그런 훈련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다양한데, 한일 전공이라고 한국과 일본만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좋은 번역가 되기

질문 좋은 출판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김승복 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어떤 번역가와 일하고 싶은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번역가를 볼 때 그 사람이 번역하고 싶은 책이 문학이든 경영서든, 실용서든 상관없이 '리스트'가 몇 개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책의 성향들을 비롯해서 장르에 관계 없이 나

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가 있는 사람들은 신뢰가 갑니다. 두 번째는 여행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단 몇 개월이라도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야 속속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번역이 아닌 자기 글을 쓴 적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문장력을 보는 거죠.

간혹 번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무작정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전화를 해서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패턴인데, 문학은 아니지만 한국에 여행을 가서 봤던 책들을 직접 번역해서 제본해 옵니다.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원하는 책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에이전트를 하는 겁니다.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열정에 뭔가 답을 만들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이미 번역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100개의 리스트 중에 정말 하고 싶었던 베스트 10이 있을 테고, 그것이 문학이라면 저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저에게는 정말 보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해야 할지 이미 스스로 답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출판사를 고를 때는 내가 번역하고 싶은 책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곳을 공략하면 소위 코드가 맞다고 하죠? 너무 엉뚱한 책을 제안하지 마시고, 비슷한 책을 냈던 경력, 출판사의 색깔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한중 전공 학생인데요, 중국에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어느 정도 히트했는데, 일본에서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책이 팔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름대로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혹시 번역가에게도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알고 싶어요.

김승복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일본에서 안 팔린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일본의 청춘들은 아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복합적인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보다 비경쟁 사회인 것이죠. 게다가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연애도 별로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아픔이 비교적 적은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한국 것을 어필해서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적인 답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많이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번역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 분들은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출판사에 직접 제안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제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책을 이 시점에 당신 회사에서 내야 하는지 그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안서를 쓰는 본인이 잘 알아야 하잖아요. 출판사의 경향도 봐야 되고, 내가 번역할 책들이 어떤 경향인지 알려면 일본 내의 트렌드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일본에 안 가더라도 일본 사이트를 계속 분석하고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 베스트셀러들이 뭔지, 그런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질문 지금까지 받아보신 제안서 중에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제안서라든가, 아니면 출판사에서 원하는 제안서에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한국 책을 번역 출판할 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복 먼저 어떤 과정을 통해 책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미 내고 싶은 책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꾸준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작품을 내고 싶다고 출판사에 전화를 합니다. 한국은 출판사가 거의 에이전트를 하지만 이미 특정 에이전시와 전속으로 계약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 문의를 하면 그 작가의 전속 에이전시 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거래 주문서를 냅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검토서를 쓰고 싶다면 출판사의 판권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출판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일본어를 정말 잘 하고 일본 출판계도 많이 안다면 직접 중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일본 판권에 대해 내가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꼭 번역만이 아니라 중계 비즈니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일본 출판계 트렌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출판사들과의 관계도 돈독

히 해서 그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실적이 좋다, 신뢰할 만하다는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 출판계도 많이 공부해서 제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제안서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출판사 편집자들도 나름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성스럽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문학뿐만이 아니라 외국 문학이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 어쩌면 한국 상황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에도 오르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문학 담당 편집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이 책이 일본에서 소개되었으면 좋겠는지 번역가의 감동을 편집자도 느낄 수 있도록 문장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많이 팔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출판사는 어떤 산업보다도 감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런 감성적 접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적은 처음인데, 그렇다 면 내가 할 일이 뭘까, 뭘가 새로운 계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류가 쇼 비즈니스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곳이 일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늘 정치적인 접근이 많습니다. 또 한류를 통한 문화적인 접근이나 역사적인 접근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적인 접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스스로 늘 안타깝고 허전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한국에는 지(知)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있습니다. 한국의 지가, 지적인 영역이.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든 책이 바로 <한국, 조선의 지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들, 이를테면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에서부터 가메야마 이쿠오(亀山郁夫) 같은 철학가나 사상가들에게 원고 청탁을 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접했던 한국의 지(知)에 대해서, 만일 책으로 읽었다면 그 책을 추천하시고, 그 책에 대해 2,000자 이내로 소감을 적어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유명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50명 정도 답이 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140명이나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식민지

시절도 있었고, 한국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공개화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선의 지'를 읽었으니까 다음은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의 미를 읽다>라고 해서 미술, 영화, 음악, 요리 등 다양한 부분을 비주얼하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추상적인데 <한국, 조선의 마음을 읽다>로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인물도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추천 받아서 3권을 세트로 내는 것으로의 제 계획입니다. 또 책으로 내는 것만이 아니고, 일본의 지성인들이 한국의 지적인 면들을 발언할 수 있게끔 국제 심포지엄도 열어볼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의 발언이 조금 더 크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중 번역과인데요, 지금 일본 쪽만 하고 계신데 혹시 언어권을 확장해서 다른 나라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승복 중국권은 직접 해보십시오. 이 기획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한중의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출판사들에게 한국 책을 내자고 제안하는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북을 만들면, 어떤 분들은 왜 경쟁자를 만들어서 스스로 목을 조이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속담에, 오솔길에 라면 집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라면 집이 20개가 있으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안 되던 집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오솔길에 라면 집 같은 골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K문학 진흥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많은 분들이 문학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셔서 결성된 지 3년 만에 이름을 'K-BOOK 진흥회'로 바꿨습니다.

질문 저는 한국문학 작품을 불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감수성의 차이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프랑스에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어 오히려 한국, 프랑스에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우 작가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유명해졌다고 하니 일본에서 번역이 될 때, 프랑스 출판사에서 썼던 여러 자료들을 일본 출판사에서 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특히 서구에서 인정 받는 것을 동양에서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국문학을 하실 때 더 큰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시진 않으시나요?

김승복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우 선생님 같은 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저는 더 많은 출판사들로 확산되는 것을 장려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진 작가들은 다른 출판사들이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책은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한강 씨 같은 분들은 메이저는 아닌데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1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서도 먹힌 겁니다.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한국 소설을 읽게 돼서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 책을 낸 후 'K문학 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서감상문대회를 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대학생들의 응모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직장인들이 80%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앙케트에 나이도 적어달라고 했는데 모두 4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 회사원들이. 그래서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좋은 작품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40대가 인정했고, 남자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은 이 층이 어떤 층인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정말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소설이든 새로 나왔다고 하면 일단 사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확보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확보하고 싶은 층은 한류로 접근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할 때 손이 가게 할 만한 본격 소설들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한국의 단편 소설들이 발달된 데에는 사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장르 면에서 일본에서는 장편을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단편 소설이 더 잘 되나요?

김승복 한 작가를 알려면 장편이 훨씬 좋다고 보지만, 저는 작품의 질을 중시합니다. 한국의 젊은 소설가들은 정말 단편을 잘 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장편을 써서 나온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 부분은 정말 좋지만 뒤에 가서 다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들과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이다. 대신 뒷부분은 고치자."라고 말합니다.

질문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구 독자들은 장편 위주로 먼저 소개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단편을 읽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번역할 때 애로 사항이 조금 있어요. 단편은 정말 좋은 작가들인데 장편은 말씀하신 것처럼 뒤가 약한 문제들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시아니까 단편을 많이 읽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김승복 일본도 장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좋은 장편보다 좋은 단편이 많으니까 일단은 좋은 것을 먼저 소개해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단편집이 많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책거리’라고,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는 원래 의미도 있고, ‘책의 거리’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 이름을 ‘책거리’라고 지었는데, 평소에는 카페로 운영하다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작가들을 초청해서 강연이나 토크, 연주회, 혹은 설명회를 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문학이나 해외의 것에 개방적인 일본 서점들을 대상으로 한국 서적 북페어를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3명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늘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한 편집자들을 많이 확보하셔야 하고, 한 번 통역을 의뢰받았으면 담당자의 마음을 확실히 사야 합니다. 물론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한국문학을 일본에 전할 때 한국인이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승복 충분히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김후나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학교를 나와 일본에서 유학한 후 번역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한일, 일한 다 하십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사실 번역자의 원고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반드시 유능한 편집자가 따라야 되요. 예를 들어 <설계자>를 번역한 오순영 씨는 번역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하고 작업을 한 이유는 이 분이 일본어로 쓴 소설이 있는데, 한 친구가 제가 편집, 출판을 하니까 그 분 소설이 어떤지 한 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문장도 나쁘지 않았고 읽기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

다. 다만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문장을 보는데, 이 분은 그런 수업을 받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자질이 있어 보였습니다. 소설가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그 분은 장편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인데, 소설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 번역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함께 <설계자>를 작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기 때문에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번역도 판권이 있든 없든 좋으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제가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전 그냥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한국문학을 내는 즐거움에 대해 만끽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uthor's email address

김승복
sb-kim@cuon.jp

전양주
subemarumi@dreamwiz.com

About the author

김승복
일본 쿠온(CUON) 출판사 대표. 서울예술대학에서 현대시를 전공하고 일본 대학에서 문예평론을 전공. 문학
서적으로 한국어권과 일본어권을 잇는 일을 하고 있음.

전양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 한일 전문 번역사. 역서: 『NIPPON 코퍼레이션』, 『거래의 신 혼마무네히사
평전』 등.